

活 있고  
快 適 한  
漁 港 漁 村  
建 設

會 訓  
創 奉 誠  
意 仕 實

# 漁 港 消 息

발행점 孫 井 植 特 殊 韓 國 漁 港 協 會  
편집인 金 在 克 特 殊 韓 國 漁 港 協 會  
인쇄인 金 在 克 特 殊 韓 國 漁 港 協 會  
ISSN 1227-7053 TEL. 3673-2851~3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568-6651~2  
FAX. 568-6653  
e-mail : kfpa8769@chollian.net

## 올해 어항공사 일정 크게 앞당겨

### 총 50건에 34건 착공, 2월중 총사업비 기준 84% 발주

올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제1·3종 어항시설공사가 예년에 비해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대상사업 50개 1·3종어항 가운데 1/4분기 추진계획 34개 항(총사업비의 84.4%) 중 2월 20일 현재 대변, 울도, 초도, 풍남, 남도, 녹동, 매물도, 지세포, 삼덕, 구조라, 수산, 안목, 어청도, 보옥, 득암, 어란진, 현포, 축산,

오산, 감포, 김녕, 신양, 모항, 오천항 등 24개항이 착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호, 소흑산도, 여

서, 수품, 구산, 대진항 등 6개항은 계약추진 중이며,

국동, 임원, 저동, 도두항 등 4개항도 2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나머지 16개항 중 덕적도, 시산, 안도, 정자, 거진, 아야진, 남애, 말도, 사동, 청산도, 서망, 죽변, 대보, 모슬포, 흥원항 등 15개항은 4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대포항은 3/4분기 에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 어촌정주환경 조성 위해 어항기능 다양화 추진키로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 답변서

해양수산부는 어촌관광, 교통 등 어항기능의 다양화와 어항투자예산을 계속 확대하여 종합개발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2월 4일 개최된 산하단체장 간담회에서 순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이 건의한 '어항정책의 방향전환과 국민적 어항 조성'과 관련, "그 동안 어항을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륙 등 단순기능 위주로 개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어촌관광, 교통 등 기능을 다양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등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길 장관은 또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항에 대한 투자예산을 계속 확대하여 어항의 종합개발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급격한 산업화로 우리의 연안해역이 오염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래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이른바 자정능력을 갖고 있으나 지금 우리의 바다는 그 기능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과 환경보호단체가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이니 하며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열을 내며 관심을 쏟고 있으나 정작 바다환경에는 열의가 덜한 탓인지 문전옥답인 우리의 바다가 피폐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 그리고 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잘 알고 있다시피 최근들어 바다가 제2의 국민 휴양지로 떠올라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이제는 어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구조가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 금이다. 바로 이때 우리의 연안바다가 죽어가는 것은 산업균형이란 측면에서 볼 때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상당수 연안어장은 폐쇄돼 가고 있으며, 어민들도 정든 어촌을 하나 둘 떠나 수산업의 사양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어민들이 떠난 빈 자리를 수입 수산물이 점령, 우리 식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바다를 살려야 한다. 죽어가는 바다를 숨쉬는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바다를 되살리는 것은 곧 꿈을 살리는 것과 같으니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나 환경오염이란 것이 원래 그러하듯이 오염시킬 땐 순간적이지만 이를 되살릴 땐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드는 비용 역시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따라서 바다오염을 막는 일과 이를 정화하는 일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좀더 관심을 갖는 게 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공성이 있는 바다오염 방지와 정화사업은 먼저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바다정화는 한순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94년 이후 7척의 어항정소선을 정부로부터 위임위탁 받아 전국의 어항·항만·연안지역의 청소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같은 수준으로는 바다정소가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선의 규모와 척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우리의 문전옥답 바다를 되찾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바다정소를 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가 하는 대목이다.

이는 바다오염을 잘못 알고 있는데서 나온 발상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만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그런 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청소선 운영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다면 승선원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이다. 버린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것은 사후 처벌방법이다. 이를 버리지 못하게 단속하고 예방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 이상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듯 싶다.

따라서 승선원이 단지 쓰레기와 오물수거에만 국한하는 소극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이를 직접 지도 계몽 단속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 준다면 깨끗한 바다가 되찾는데 일조를 하리라 확신한다.

물리적인 제재를 동원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은 못되지만 지금 우리 바다가 처한 환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동시에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안겨줄 필요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공유수면·어항·항만 등 전국연안을 대상으로 수중폐기물을 일제 조사하여 폐기물 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전옥답 연안바다가 되살리거나 사라졌던 물고기가 나타나고 떠났던 어민들이 돌아오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부의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문전옥답 연안바다를 되살리자

### 99년도 어항시설사업 추진현황

2월 2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청 별	항 명	사업비	계약처	계약일	착공일
합계	50개항	131,937		24개항	24개항
●1/4분기발주		111,310	(84.4%)	24개항	24개항
부산	1개항	5,000			
	대 변	5,000	조달청	2.06	2.09
인천	1개항	1,800			
	울 도	1,800	자 체	1.16	1.20
여수	5개항	12,900			
	초 도	3,300	자 체	1.22	1.23
	풍 남	3,000	자 체	1.21	1.22
	남 도	2,800	자 체	1.20	1.22
	녹 동	2,300	자 체	2.11	2.11
	국 동	1,500	자 체	설계중	
마산	4개항	10,900			
	매물도	3,000	조달청	2.01	2.02
	지세포	3,600	조달청	2.03	2.10
	삼 덕	2,800	자 체	2.05	2.09
	구조라	1,500	자 체	2.05	2.09
동해	4개항	15,835			
	수 산	5,000	조달청	2.02	2.09
	안 목	5,000	조달청	2.03	2.11
	장 호	4,835	조달청	발주요청	
	임 원	1,000	자 체	설계중	
군산	1개항	5,000			
	어청도	5,000	조달청	2.08	2.10
목포	6개항	23,800			
	소흑산	6,000	조달청	발주요청	
	여 서	5,400	조달청	발주요청	
	수 품	4,200	조달청	발주요청	
	보 옥	3,900	조달청	2.09	2.10
	득 암	3,300	자 체	2.05	2.08
	어란진	1,000	자 체	2.10	2.11
포항	7개항	23,587			
	현 포	5,300	조달청	2.10	2.18
	축 산	3,800	조달청	2.06	2.11
	오 산	3,500	자 체	2.01	2.02
	구 산	3,300	자 체	발주요청	
	대 진	2,400	자 체	발주요청	
	감 포	2,587	자 체	2.05	2.08
	저 동	2,700	자 체	설계중	
제주	3개항	6,599			
	김 녕	3,239	조달청	2.06	2.09
	도 두	1,660	자 체	설계중	
	신 양	1,700	자 체	1.20	1.21
대산	2개항	5,889			
	모 항	4,189	조달청	1.27	1.30
	오 천	1,700	자 체	1.29	1.29

### 4월중 발주계획

청별	항명	사업비	계약처
● 2/4분기		19,627	(14.9%)
인천	1개항	600	
	덕적도	600	자 체
여수	2개항	3,700	
	시 산	3,000	조달청
	안 도	700	자 체
울산	1개항	700	
	정 자	700	자 체
동해	3개항	1,720	
	거 진	600	자 체
	아야진	420	자 체
	남 애	700	자 체
군산	1개항	3,307	
	말 도	3,307	자 체
목포	3개항	3,200	
	사 동	2,000	자 체
	청산도	700	자 체
	서 망	500	자 체
포항	2개항	2,300	
	죽 변	1,500	자 체
	대 보	800	자 체
제주	1개항	1,500	
	모슬포	1,500	자 체
대산	1개항	2,600	
	흥 원	2,600	자 체
● 3/4분기		1,000	(0.7%)
동해	대 포	1,000	자 체

동

정

### 어선원유자녀돕기 바자회 개최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4일 중앙투자금융빌딩 강당에서 해양수산 유관단체장 48명을 초청,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상호간의 이해도모를 당부, 11일에는 어선원유자녀를 돕기 위해 2월의 수산물인 김을 중심으로 한 건어물 바자회를 개최, 19일에는 어업지도 단속 관계관 회의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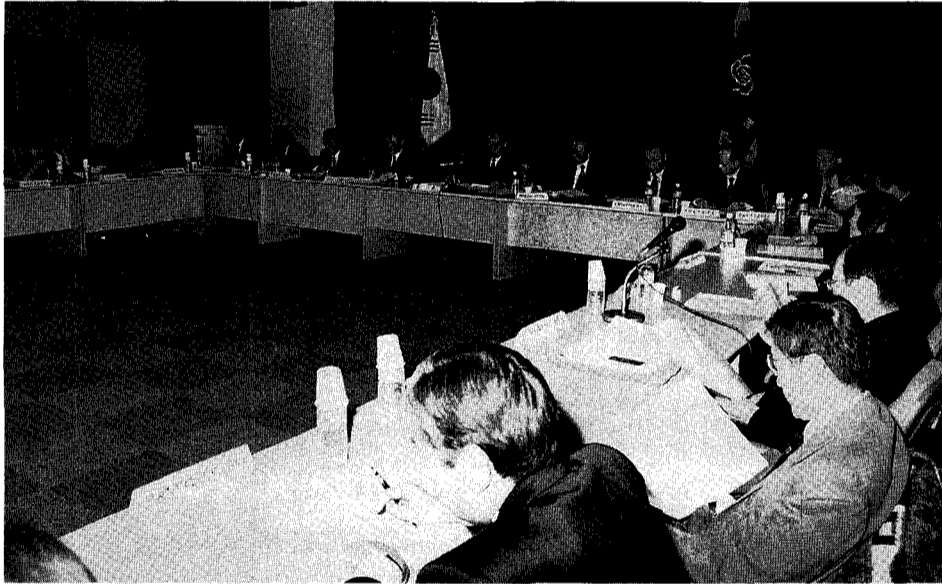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2월4일 해양수산부장관 주재 해양수산 유관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어항정책의 전환과 어항의 다기능 종합개발로 국민적 어항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건의, 23일에는 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1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에 참석, 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단면 주요 현안과제 심의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2

월11일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전국 34만 어업인을 대표하여 한·일 어업협상으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산생존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3일 제2건국범국민추진다짐대회에 참석, 10일에는 4H후원회 99년도 정기총회에 참석, 1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복실항민 초청 위안잔치에 참석, 22일에는 99년도 국가대표선수 훈련개시식에 참석, 23일에는 바르게살기전남협의회 99년도 정기총회에 참석, 24일에는 2002월드컵 범시민추진위원회 간담회 참석, 25일에는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제22차이사회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2월3일 제2건국범국

민추진다짐대회에 참석, 10일에는 송원학원 산하 각급 학교 졸업식에 참석, 24일에는 2002월드컵 범시민추진위원회 간담회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2월23일 건설공제조합 자문위원회에 참석, 이어 건설회관2층에서 열린 건설공제조합 총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3일 제2건국범국민추진다짐대회에 참석, 5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68차 운영위원회에 참석, 8일에는 광주시청에서 대학생통일강좌를 개최, 9일에는 건설공제조합운영위원회에 참석, 22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장단회의에 참석, 23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24일에는 2002월드컵 범시민추진위원



해양 수산단체장 간담회 개최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4일 중앙투자금융빌딩 강당에서 해양수산 유관단체장 48명을 초청,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상호간의 이해도모를 당부했다.

회 간담회를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3일 제2건국범국민추진다짐대회에 참석, 4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이사회에 참석, 7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11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22일에는 한·일경제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25일에는 경영자총협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1일 광양 묘도 준설토투기장 공사현장에 출장, 11일에는 해남 양촌제 공사현장에 출장,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8일 군산대학교 소통캠퍼스 이전 및 제2도서관 신축공사 기공식에 참석,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3일 제2건국범국민추진다짐대회에 참석, 5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68차 운영위원회에 참석, 10일에는 제주도청에서 대학생통일연수를 개최, 24일에는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주관 세미나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상호종합

건설 회장은 2월23일 진주 삼천포 공사현장에 출장.

### 인사

▲수협중앙회 □부장급 승진 △유통기획부장 이형중 △상호금융부장 김철기 △무역사업단장 김홍철 △감사부속실장 염기영 △비서실장 정만화 △동대문지점장 권영복 △마포지점장 박성기 △연수원장 구용모 △총청지회장 조규호 △전남지회장 박길수 △(주)수협유통사장 장한규 △외발산동공판장장 이지우 △감천항물류센터장장 김광수 □부장급 전보 △지도검사부장 이우섭 △여신관리부장 박재훈 △수신지원부장 이태식 △공제부장 강병순 △강원지회장 김재운 △노량진지점장 박조권 △경북지회장 장재우 △경남지회장 정근용 △부산지회장 김용방 □승진(1급) △김찬욱 기획조정실 기획역 △강신의 전자계산소 정보관리실장 △박호신 감사부속실 감사역 △이근희 유통기획부 부부장 △이강혁 지거래사업단장 △김용건 천안 냉장물류 사업소장 △송기춘 김현우 김성철 김경식 변광기 판매부 바다마트 개설팀장 △김충권 카드사업단장 □지점장 △유영국 역촌동 △황의신 면목동 △조경원 역삼동 △정평석 공릉동 △이경섭 둔촌동 △최규태 오금동 △이상호 금천 △조택수 장안동 △장석현 동대문 △이우민 주안 △최성기 인천 △민승조 강원도 영업부장 △송용호 충청지회 영업부장 △김기룡 전남 영업부장 △문영희 양동 △신준철 북광주 △이인한 금남로 △정무영 대구 △서진수 서대구 △김양호 진주 △김종도 광안동 △강태국 응암동 △최종근 강원도 지회 △최창국 전남도지회 □전보(1급) △김일 지도검

사부 △이윤용 부산어업무선국장 △황태수 판매사업부 운영팀장 △김유복 가락동 공판장장 △김광근 흥인표이중수 김귀평 판매사업부 △박종본 금융기획부 △김영태 수지지원부 △허영만 공제사업부 △백선기 공제사업부 △박홍규 김익호 정영길 채권관리부 관리역 △임영호 종로 △나재운 노량진수산시장 △손영준 서초동 △정상원 여의도 △김홍섭 을지로 △김영국 종각 △심재의 대림동 △유은종 성남 △공창석 쌍문동 △서재춘 논현동 △임동홍 미아동 △정열 수유동 △김용부 가락 △윤종원 성수동 △김만성 분당 △배인상 신정동 △이형근 방이동 △박노영 가락중앙 △김광용 관악 △김대경 중화동 △이광희 경인지회 △김수송 시흥

### 의 속

▲정창세씨(한국원양어업협회 부회장의) 차녀 소영 양이 2월27일 오후2시 수협중앙회 2층 대강당에서 화촉을 밝힌다.

### 주소 변경

▲신순균씨(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토목사무원)는 최근 자택주소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88-2번지 동아아파트 717동 801호로 변경했다. 전화번호 : (0331) 202-2079.

### 의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재철)  
 ■개인  
 ▲안중철씨(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송예용씨(해양수산부 비상계획담당관)

## 어업보상 등 종류별 세분화

### SOC사업 보상기준 관계법 개정

정부는 도로,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보상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들 사업에 대한 보상규정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대규모 SOC사업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보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도로를 비롯 대규모 시설사업의 보상기준을 오는 상반기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상반기에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별법과 토지수용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이 개정안에서 토지보상은 물론 영업보상, 어업보상 등 보상종류별 기준을 지금보다 구체화시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 지자체의 소규모공사

등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규모가 전체 사업비의 20%정도로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처럼 보상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보상비규모가 지금보다 줄어들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지역이

기주의 사태도 크게 해결돼 사회간접자본시설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보상기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지역건설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정부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추진

정부는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입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할 경우 PQ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키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지자체에게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에 실시한 지방경쟁제 설명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토대로 이같은 방안들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키 위해 입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되 100억원이상 대형

### 어항청소소식 소식

3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소식 이용안내	
선명	월일	지역	선장	연락처
어항 901호	3. 8~3.13 3.22~3.27	군산항 및 연안 적포항	최동림	(휴대폰) 011-247-5592 (호출기) 012-247-5592
어항 902호	3.15~3.17 3.22~3.25	목포연안 목포항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호출기) 012-953-5590
어항 903호	3. 8~3.13 3.22~3.27	녹동항 풍남항, 내발항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호출기) 012-953-5591
어항 904호	3. 8~3.13 3.22~3.27	돌산항 및 연안 국동항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호출기) 012-952-5596
어항 905호	3.25~3.27	통영항, 외포항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호출기) 012-1166-1358
어항 906호	3.15~3.20 3.29~3.31	감포항 읍천항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호출기) 012-909-5594
어항 907호	3.23~3.27	주문진항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호출기) 012-953-5597

공사의 입찰 때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제를 구성해 참가하는 경우 PQ심사시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

해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팀을 통해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 일본과 선진국을 벤치마킹으로 한 각종 데이터와 설문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개발력을 이같이 평가했다. 건기연은 건설산업의 연구원 수, 근로자 1천명당 연구원 수, 기술개발 투자대 국내총생산비율,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등을 요소로 국가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표화한 기술개발력에서 우리나라의 2000년도 수준이 일본의 88년도와 같아 약 12년의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 건설기술 일본에 12년 뒤져 발전속도는 2배 빨라

우리나라가 국가적 건설기술개발력에서 일본보다 약 12년정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은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건설기술경쟁력 지표개발 및 장기발전방향'이라는 연구에

# '전국 해안을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 연안정비 10개년사업 본격 시행

태풍 등 자연재해와 폐어구,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전국 연안을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8일 새로운 연안관리법이 제

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오던 어항·항만개발 위주에서 탈피, 전 해안선(도서포함 1만1,542km)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이번에 수립되는 연안정비계획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파손된 제방·호안·방파제 보수, 폐어구·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바다속 정화, 방치된 폐선 등을 제거하고 낚시터, 해변공원, 해양생태공원과 같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기조로 우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동안 시행할 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 투자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까지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연말까지 연안정비계획(안)을 마련, 관계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수렴,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00년초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에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인천 소래포구 상류에 방치된 공유수면과 폐염전 약106만평에 인공습지, 자연학습체험장, 해양수산과학관 등이 갖추어진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방안을 지자체와 협의·수립하며, 경북 울진군 왕피천 일원 약 19만평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도 완료할 예정이다.

# 인간과 바다가 함께하는 첨단해양도시

## 부산시 국제교류거점도시로 발돋움

부산시는 대륙과 해양의 연결거점인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오는 21세기 도시발전목표를 인간과 바다가 함께하는 세계첨단해양도시로의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국제물류거점도시로의 발전은 물론 국제정보거점도시, 국제업무중추도시, 국제교류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는 국제물류거점도시로 발전키 위해 국제물류단지 및 3세대항만사업, 부산테리포트와 부산영상타운 사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자유관광단지와 국제컨벤션타운, 외교단지, 국제타운조성 등을 통해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시발전구상을 효

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오는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눠 도시계획을 펼쳐기로 했으며 1단계인 오는 2001년까지 우선 신항만을 비롯 정보단지의 1단계사업, 부산테리포트, 공단확충 등의 도시개발사업을 펼쳐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2~2006년까지의 2단계 기간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광역교통망 구축과 지하도시개발, 자유무역지대, 복합물류유통단지조성 등을 추진, 동아시아의 거점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3단계인 오는 2007년부터는 가덕도 신항만과 해상신공항, 해상신도시건설, 부산-후쿠오카 해저터널건설 등 첨단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 환태평양의 해양수도로서까지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 바닷가 무허가횃집, 방치 폐선박 소유자에게 벌금부과

해양수산부는 오는 8월부터 바닷가에 허가없이 횃집과 같은 음식점 등의 시설, 폐선박, 생활쓰레기 및 오·폐수 등을 버리는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바닷가에 무허가시설물이 난립, 폐선박·생활쓰레기 및 오·폐수는 물론 심지어 경운기나 리어카까지 투기함으로써 바다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무허가음식점의 난립이나 쓰레기 투기 등은 바다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부족 뿐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던데도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벌칙을 대폭 강화하

여 바다살리기의 한 방편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벌칙의 적용에 앞서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 설 명절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안 읍·면·동까지 부착 홍보토록 하는 한편, 8월부터 달라지는 바다관리의 내용을 담은 팸플릿 '바다관리 어떻게 달라지나'를 제작, 지자체, 학계, 어촌계 등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여 8월부터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연안주민은 물론 연안을 찾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실행되느냐에 따라 바다살리기의 첫걸음이 어떻게 실행될 지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 바다환경보호 적극 전개키로

### 어항협회 표어 62점중 8점 선정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바다환경 보호에 대한 표어를 공모, '바다사랑 나라사랑 우리모두 앞장서자' 등 8점을 선정했다.

한국어항협회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연안 오염과 관련, 지난해에 이어 바다환경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하고 우선 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표어를 공모, 모두 62점중 8점을 최종

선정했다.

협회는 선정된 표어를 현수막과 어깨띠로 제작, 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7척의 어항청소선과 선장 기관장 등 승선원을 통하여 바다환경보호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협회 정기간행물인 월간 어항소식과 계간 어항지에 주기적으로 게재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8점의 표어는 아래와 같다.

## 1999년도 일본 어항어촌관계사업 예산(안)총괄표

(금액단위 : 백만원·%)

사 항	'98당초 예산(A)	1999년도 예산 정부(안)							합 계 (B)	전년비 (B/A)	비 고
		통 상 분			특 별 범 위						
		기정분	경 기 대 책	소 계	물 류 범 위	21세기 범 위	생 활 범 위	소 계			
I. 어항어촌정비	199,401	187,468	4,760	192,228	901	2,247	5,563	8,711	200,939	100.77	
1. 어항정비	150,479	150,479	4,760	155,239	846	1,846	3,812	6,504	161,743	100.05	
어항수축	114,338	107,742	2,913	110,655	846	1,846	3,584	6,276	116,931	102.27	
어항개수	36,999	32,454	1,847	34,301	0	0	228	228	34,529	93.32	
국부개량	10,323	10,283	0	10,283	0	0	0	0	10,283	99.61	
2. 환경정비	17,175	17,245	0	17,245	0	302	1,659	1,961	19,206	111.83	
공해방지	60	60	0	60	0	0	0	0	60	100.00	
어항환경	3,236	3,112	0	3,112	0	144	0	144	3,256	100.62	
집락환경	13,879	14,073	0	14,073	0	158	1,659	1,817	15,890	114.49	
3. 총합정비	7,178	6,383	0	6,383	0	99	92	191	6,574	91.59	
어항어촌총합	6,063	5,302	0	5,302	0	99	92	191	5,493	90.60	
어항이용정비	1,115	1,081	0	1,081	0	0	0	0	1,081	96.65	
4. 어항관련도로	4,257	4,230	0	4,230	55	0	0	55	4,285	100.66	
5. 기 타	8,120	8,120	0	8,120	0	0	0	0	8,120	100.00	
(1~5계)	198,390	186,457	4,760	191,217	901	2,247	5,563	8,711	199,928	100.78	
6. NTT-A	1,011	1,011	0	1,011	0	0	0	0	1,011	100.00	
II. 어항해안	16,014	15,115	242	15,357	0	77	588	665	16,022	100.05	
1. 해안보전	10,368	9,750	242	9,992	0	57	336	393	10,385	100.16	
2. 해안환경	4,422	4,150	0	4,150	0	20	252	272	4,422	100.00	
3. 공유지조성	160	148	0	148	0	0	0	0	148	92.50	
4. 기 타	1,064	1,067	0	1,067	0	0	0	0	1,067	100.28	
(I+II)	215,415	202,583	5,002	207,585	901	2,324	6,151	9,376	216,961	100.72	
III. 재해복구	575	413	0	413	0	0	0	0	413	71.83	
(I+II+III)	215,990	202,996	5,002	207,998	901	2,324	6,151	9,376	217,374	100.64	
IV. 고도이용활성화	916	1,664	0	1,664	0	0	0	0	1,664	181.66	비공공사업
총 합 계	216,906	204,692	5,002	209,662	901	2,324	6,151	9,376	219,038	100.98	

# 바다환경을 보호합시다

- 바다사랑 나라사랑 우리모두 앞장서자
- 남 몰래 버린 오물 나 모르게 오는 피해
- 바다 바다 바다 바다는 삶의 터전
- 오염된 후 후회말고 청정수역 보전하자

- 죽어가는 바다환경 어업터전 무너진다
- 깨끗한 우리바다 풍요로운 우리마음
- 깨끗이 가꾼 바다! 풍요로운 바다목장!
- 몰래버린 뱃줄하나 바다생명 단축한다

한 국 어 항 협 회



### 허리가 아픈 증세

무릎에 버개받쳐 구부린상태로 침상안정 중요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척추는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허리를 구부리고 팔이나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몸의 중심에 따라 요추가 지렛대와 지렛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받게 되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척추는 물론 주위 조직의 약화로 쉽게 손상을 받게 된다.

사람이 평생을 사는 동안 65~80% 정도가 한 번쯤은 요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중 44% 정도가 별다른 치료없이 침상안정으로 1주일 정도면 자유치유가 되며 나머지의 86% 정도가 1개월 내에 호전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0명의 요통환자 중 1명 정도는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허리 디스크를 의학적으로 용어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20대 초부터 발생되어 30대를 전후하여 호발하며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이로인한 요통을 드물다.

증세는 처음에는 허리만 아프다가 차츰 다리를 뻐쳐나가는 통증을 호소하며 무릎을 펴고 허리를 구부릴 때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혹은 대변을 볼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진단법으로는 하지 수지 거상법이 있는데 이는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올릴 때 통증을 유발시키는 검사법으로 정상인의 경우 60도이상 다리를 올려도 통

증이 없다. 허리가 아플때의 일반적 대 중요법은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의 대중 요법은 급성 통증기와 회복기, 예방기로 나눈다.

급성 통증기 절대 침상안정이 중요하다.

1) 침상안정 : 딱딱한 매트리스나 침상에 편한 자세로 누워 무릎에 버개를 받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안정을 취한다. 안정은 22시간 절대안정 후 2시간 정도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소 냉온열 요법 : 통증 발생 처음 24시간 내에는 얼음 찜질이 도움이 되기도 하며 근육 수축에의 통증의 경우는 온열 요법이 순습게 행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다.

3) 침상운동 요법 : 급성통증기에도 침상에서 조금씩 운동을 하기도 한다. 즉 누운 상태에서 허리로 침상을 만다는 기분으로 허리에 힘을 주었다가 빼는 등 장성운동이 주를 이루게 된다.

회복기 근이완과 강도를 보강하는 시기로 간단한 침상운동부터 시작하여 산책 등 보행을 권장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방기 통증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루 5분 정도씩이라도 계속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며 수영, 산책, 자전거타기 등도 좋다.

#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28]

## 第3章 基礎工

### 3.2.2 표준적인 시공순서

표준적인 시공순서는 그래브 준설과 같다(2.3 그래브 준설 참조).

### 3.2.3 시공방법

굴착공사는 계획수십이상의 수심을 요구하는 준설공사와 달리 정확한 시공을 해야 한다.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굴착한 경우는 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원지반과 동등이상의 재료로 되돌려 놓는다.

치환공이 필요한 해저굴착공사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a. 지지층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계획저면부근 준설토사의 토질을 항상 파악하여 지지층을 확인한다. 지지층이 계획보다 얕을 경우 또는 깊을 경우는 감독자의 승낙을 얻어 굴착 단면을 변경하여 시공한다.
- b. 특히 사질토나 점성토가 교대층으로 되어 있는 곳은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 c. 지지층은 가급적 점성토와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시공한다.
- d. 지나치게 파면 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토사처분량이나 치환재의 사용량이 증가하므로 계획면 부근에 대하여는 주의깊게 시공한다.

### 3.2.4 시공관리

공정관리, 위치와 깊이의 확인 및 오탁관리는 준설공사와 같다.

해저굴착공사 시공관리의 주된 관리는 구역관리이다. 구역의 확인측량은 원칙적으로 음향측심기로 하고, 알을 경우나 공사수량이 적을 경우는 레드(lead)나 스태프(staff)등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다.

측선간격은 설계도서 횡단도의 각 측정 및 그 중간점정도를 표준으로 해도 좋다.

구역의 확인측량은 공사현장에 작업선 등이 있는 동안에 할 필요가 있다. 굴착공의 구역 관리항목과 그 허용

범위는 표 3.2.1에 제시한 바와 같다.

### 3.3 치환사공

#### 3.3.1 개 설

치환사공은 연약한 점성토를 그래브준설선 등으로 굴착제거한 후, 구조물의 기초가 되는 양호한 사질토로 치환하는 공사로 시공방법이 간단하여 단기간에 확실하게 양질지반으로 치환될 수 있으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치환사의 일반적인 투입방법을 그림 3.3.1-그림 3.3.2에 도시한다.

어항공사에서는 거트(gut)선에 의한 투입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거트선에 의한 투입에 대하여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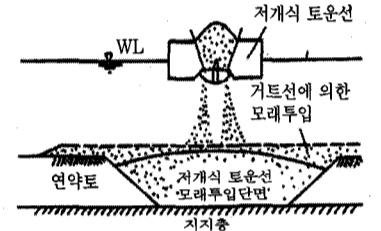


그림 3.3.1 바지선에 의한 직접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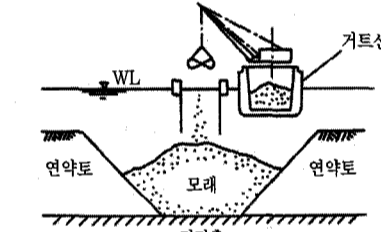


그림 3.3.2 거트선에 의한 투입

표 3.2.1 굴착공의 구역 관리기준

공 종	관리항목	측정방법	측정밀도	측정단위	결과의 정리방법	관리기준치
굴 착	저 면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측선간격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10cm	평면도에 실측치를 기입하여 제출	±30cm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비탈면	동상	동상	10cm	동상	외측 2m (비탈면에 직각) 내측 30cm (비탈면에 직각)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 '99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1. 기본방향

지금까지의 개별면담식 신고지도 방식의 타성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신고지도 방식에 의한 성실신고유도를 하고, 신고 지도를 빙자한 납세자와의 개별 접촉 과정에서 생기는 부조리 해소 등 달라진 세정의 새모습을 보임.

### 2. 종전과 달라진 점

#### 가. 개별면담식 신고지도방식 완전 폐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개별면담식 신고지도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증액신고의 강요를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었고, 납세자와 접촉과정에서 부조리의 소지를 제공하는 발みが 될 수도 있었음. --> 신고지도 기간중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여 기업의 실상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 납부하는 안전자율신고제에 대한 보장

#### 나. 구체적·개별적 문제항목을 적시한 다양한 서면 안내

안전자율신고제도로의 전환이 불성실신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님을 납세자에 알리고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항목 등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적

시한 다양한 안내문을 개별통지하여 성실신고를 유도

<문제사례 예시>

△법인전환 후 세무담이 떨어지는 법인 △세무조사 후 신고수준이 더 떨어지는 법인 △법인원천세 부당공제 혐의 법인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 영위법인 중 과소신고 소지 법인 △환차익, 특별이익 등이 발생하여 이익조절 혐의가 있는 법인 △가격인상분을 소득 반영에 누락할 소지가 있는 법인 △기업주 개인의 재산. 소득자료 분석결과 기업소득 변칙유출 혐의 법인 등

다. 신고가 끝나면 바로 불성실신고 법인 세무조사

신고가 끝나면 바로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500여개 법인을 선정, 97. 98 사업년도를 동시 정밀 세무조사 실시, 이를 미리 예고하고 성실신고 유도수단으로 활용

<불성실신고법인 예시>

△고정자산 처분 등으로 발생한 특별이익을 줄이기 위해 영업이익을 고의로 과소 신고한 법인 △환율변동 등으로 막대한 환차익이 발생한 법인인면서 소득을 고의로 줄여서 신고한 법인 △서면분석 등의 과정에서 발견된 반

복적인 세무조정 오류사항이 신고내용 분석결과 시정되지 아니한 법인 △현금수입업종·서비스업종 등 취약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고 과표현실화가 기대수준 이하인 법인 △최근 법인세조사를 받은 법인중 조사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 △무자료거래 및 자료상과의 거래가 빈번한 법인 등

라. 기업과 기업주 등의 신고 상황을 연계 관리

기업은 결손신고를 하는 등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면서 기업주 개인재산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호화생활을 하고 있어 기업소득의 유출혐의가 짙은 법인 전산출력하고, 세정개혁 차원에서 TIS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과 기업주를 연계 관리

또한 기업주 신고소득과 법인의 신고상황을 전산분석하여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높은 법인은 개별 서면안내(1,616개 법인)

\* 유출혐의금액은 기업주와 그 가구원의 최근 3년간 추정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 '99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준조세 정비

### 개별면담식 신고지도방식을 완전 폐지

마. 원천납부법인세 부동공제 등 비도덕적 기업 관리 강화

TIS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천납부 법인세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 결과 원천징수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거나 원금 및 예금이자를 누락하는 등 비도덕적 기업이 상당수 발견되었음.

이들 법인에 대하여 유사한 유형의 탈루가 없도록 서면으로 신고지도도를 강화하고 계속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며 정밀 세무조사 실시

\* 법인세 신고서 제출하는 원천납부법인세명세서와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지급조서)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로 검색, 그 내용이 맞지 않는 60,000여개 법인에 대하여 현재 확인중임.

바. 우편신고의 적극 유도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

기획예산위원회는 98.8.17 확정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그동안 정부출연·위탁기관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던 회비, 수수료, 분담금 등 준조세 16건을 폐지 또는 인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는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자가 신규면허 취득시 또는 면허 갱신시 납부하거나 자가용승용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시 납부하는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이 평균 13% 인하되고, 승강기 제조.판매자가 납부하는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 석유제품 제조.판매자가 납부하는 석유제품검사수수료 등 6건의 검사수수료가 평균 10%씩 인하됨.

또한 내수 목적의 상품 수입시 부과하던 ASEM 회비, 전국 51,000여개 아마추어무선국에 대한 정기검사(연 1회) 등이 폐지됨.

이와 같은 준조세 정비 조치로 금년에는 약 1,200억원, 2000년부터는 매년 약 37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직접 개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음.

금년중에는 각종 경기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체육진흥기금 징수 중단, 무역협회비 및 소방안전협회비의 의무납부제도 폐지(임의가입 전환) 등 3건의 준조세 정비를 추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약 500억원의 국민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임.

생활정보

생활정보